

대중과 함께 공부해야 '힘' 생겨

조실 월운 스님이 역경과 후학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갖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불교사 능업학림도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분의 선지식이 한 도량의 꽃을 피우고 한 종단의 향기를 드높게 하는 것이다.

“조실스님께 여쭙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높고 넓은 공부를 후학들이 배워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요. 조실스님께라도 늘 더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경원(經院)'을 설립해 평생 경전 연구에 매진하는 스님들이 배출되길 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졸업을 해야 하고 졸업하면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얽매어 학문을 놓쳐 버리는 것이 지금의 세태 아닙니까? 그러나 조계종에 일생을 아부 걱정 없이 경학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설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원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종본찰 봉선사의 위기가 그냥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스님, 현담을 번역하신 원고는 어찌 하셨습니다?” “그거? 학림에서 공부를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실프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불살라 버렸어요.”

다시 우문을 여준 것은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출타도 별로 안하시고 공부만 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요란 떨 일도 없어요. 아침에 잠이 깨면(3시) 누운 채로 두 발의 안쪽 면을 열심히 부딪칩니다. 팔굽혀 펴기를 200회 하고 아령 들기, 발바닥으로 붕 굴리기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2000보 이상 포행을 해요. 이 정도면 건강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든 하다가 말다 하면 성취할 수 없잖아요.”

경전을 공부하는데 있어 정원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보다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원전을 공부해야 그 대의를 밝게 알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한다.



강원이나 학림의 스님들께만 해당하겠는가? 학교교육의 위계가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도 전통 강원 교습법(논강)과 집중력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님께서는 어떤 경전을 좋아 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정적인 우문이다.”

“특별히 좋아할 것이 없어요. 다 훌륭한 가르침이고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요즘 <원각경>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원각경>

이 참 많이 와 답습니다. <대승기신론>도 매우 권하고 싶은 가르침입니다. 거기서는 '4신'과 '5행'을 강조하는데 우선적으로 '근본을 믿으라(信根本)'고 하거든요. 일체법이 진여로 평등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불교 공부를 할 수 없고 수행도 신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근본을 믿고 불법승 삼보를 믿으라는 가르침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시절입니다. 보조국사의 <진심집설>도 깊이 새겨 볼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경우 포행하면서 '제1 범회인 유분'에서 '제5 여리실견분'까지를 반복해서 외웁니다.”

물질이 풍족해지고 교통과 통신 수단이 첨단으로 발달한 시절, 수행자들의 공부도 진화해 가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진심(眞心)'과 '성심(誠心)'이라는 수행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할수록 경건한 글자, 한 단어, 한 대목을 두고 몇 날을 고민하는 확인의 정신이 더욱 빛나야 할 때이기도 하다. 확인의 정신이 진실과 성심을 벗어난다면 팔만대장경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요즘 조실스님을 도와서 운허 큰스님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자료도 놀랍지 않다. 모든 자료들에 스며 든 큰스님의 정성이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신도에게 주는 계첩 한 장에도 반듯한 글씨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신 큰스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보이니까요.”

세삼 교종본찰의 엄숙한 분위기가 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정원 스님은 능업학림에서 많은 강행들이 배출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공부를 하다가 중요하다 싶은 것은 따로 메모를 해서 외워야 합니다. 특히 경전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확연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줄기를 간추려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구절들의 용례 등도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데 속도가 불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수록 외우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 스님은 요즘 예불을 하기 위해 법당으로 가는 동안 <원각경>의 대의를 간추려 적은 문장들을 암송한다. 외고 또 외우면서 그 행간 담긴 진리의 향기를 맡는 재미다. 어느 경전이든 한번 봤다고 공부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공부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공부다. 그래서 정원 스님은 자만하지 말고 본 경전을 또 보는 자세가 없이는 공부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원전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미 누군가가 번역 해 둔 것에 의지해 공부하면 그 번역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 원전을 보면서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하다보면 폭넓은 사교의 틀이 형성되고 거기서 '번역'하는 소식이 오기도 하는 것이다. 스스로 공부의 힘을 길러가는 것이다.

“서산 스님께선 '경야(敬也) 복야(伏也)'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공경진심(恭敬眞心)과 굴복무명(屈伏無明)인데, 참된 것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외우고 반복하고 함께하는 공부 방법이 어찌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7. 남하 문학 대화상

근대 영암출신 불교학자로서 김지건 박사님, 김철진 교수 등을 손꼽고 있으나 문학(文學) 김강도(金彊模, 1934~1981) 스님이 먼저 테이프 끊은 셈이다.

문학 스님은 조선대학을 중퇴하고 나주 다보사 지호(智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1957년 <현대문학>에 '공자의 문학관'을 발표해 주목을 끌면서 64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66년 동국대 불교과를 졸업했다.

68년 타이 방콕에서 열린 세계 불교교육자대회에 참석한 뒤,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며, 73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재일홍법원(在日弘法院) 교무국장을 역임했고,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과과정에서도 수학하였다.

편견된 키에 겸정 태 안경을

교 설명하고, 신라 고려 조선시대 다인들의 다시(茶詩) 등 우리 문화와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차문화의 영향을 밝혀냈다. 또한 차의 고전인 초의 선사의 '동다송', '다신전'을 원문과 함께 해설했으며, 당나라 육우의 '다경'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중불교를 일으켰던 신라 고덕(高德)스님들의 역할을 크게 살렸고, '항가와 일본가요 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일본 노래가 한국 향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스님의 학문은 난해한 글 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즉흥적인 노래가 포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평론에 있어서도 어떤 범주에 갇혀있는 이야기 보다는 차 한 잔 마시며 <금강경 오가해>를 읊는 자율정신으로 평론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옛말에 '천재(天才)는 요사(夭死)'라 하더니 한국의 불교문학에 씨앗을 뿌려놓고 아직 막 흙을 덮기도 전에 된사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스님의 죽음이 안타깝게 생각됐다.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자식이라 생각하면 백성들이 그 사람을 알리라

영암 출신 불교학자 첫 테이프 끊어... 불교문학연구에 주력

끼고 깎마른 얼굴에 푸르스름한 입술을 가져 스님 보다는 학자적인 기질이 더 강했다. 1973년 동국대학교 선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뒤 74년 현대문학상 평론부문 대상을 받고, 불교문화예술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78년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위원이 되었다. 81년 10월까지 후학들을 양성하는 한편 불교문학연구에 주력한 스님은 저서로 <삼매(三昧)의 언어> <신라불교문학연구> <항가에 나타난 불교사상>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유심안락도> <금강경오가해> <송타니파라> <불교성경> 등이 있다.

특히 1981년 발행된 <한국의 차문화>는 우리차 부흥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에 '우리차 바로알기'를 기치로 쓰여진 책으로 차인들의 교본이 됐다. 이 책의 특징은 차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와 문학을 다루었다는 데 있다. 경전상의 차, 일본 등의 선다와 비

젊은 나이에 산처럼 쌓인 원고를 밤새도록 처리하고, 또 중단 행정, 학교(동대) 강의, 행정업무에 까지 관여하는 와중에 격무로 1981년 48세의 세수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다.

필자와는 한국불교 의식을 현대화 하는데 함께 뜻을 모으자 하여 권상로 박사님과 함께 동참한 일이 있다. 이 때 번역된 것과 한글 천수경이 모두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사 바하" 할 때 정구업 진언(淨口業眞言)을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라고 제목까지 번역하느냐, 아니면 번역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한참 동안 고심한 바가 있다.

특히 스님의 항가에 관한 논문은 일본불교와 문학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항가에 나타난 불교사상'과 '신라불교의 특수성' '균여의 문학적 위치'는 알기 쉬운 문학을 통해 대

꾸물 거리는 중생들을 먹여 살려 다스리면 이 땅 어디를 버리고 가려하겠는가 나라 안이 유지 되려면 아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라 나라 안이 태평해지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나타나면 스님은 총담 스님의 '안민가(安民歌)'를 높이 읊으며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하지만, 종이 중등에 살아가는 데는 세상과 중생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하였다.

문학과 철학을 통해 지성불자를 양성하며 이성적 불교를 사실적 행동에 옮기려 노력했던 스님, 현대불교에 한 막의 연극을 연출하다 가신 스님이 김운학 스님이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